

## Session Sketch

The Asan Symposium:  
“Celebrating Korea-US Relations: 140 Years and Beyond”  
<http://asansymposium.com>

**Session:** Economic Security and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

**Date/Time:** June 3, 2022/14:45-16:00

**Rapporteur:**

**Moderator:**

Rexon Ryu, The Asia Group

**Speakers:**

Chung Chul,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Kim Jong-Hoon, former trade minister

Noh Jongwon, SK hynix

Wendy Cutler,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

Anthony Kim, The Heritage Foundation

Troy Stangarone,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

제 3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렉슨 류 아시아그룹 사장의 사회로 경제안보와 민간분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.

첫 토론자인 김종훈 SK 의사회 의장 (전 통상교섭본부장)은 19 세기 강제적 개방과 일방적 통상조약들은 궁극적으로 주권상실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인이 개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. 하지만 한미 FTA 는 개방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했고, 80 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미국과 겪은 통상마찰 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었다고 지적하였다.

뒤를 잇은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(USTR) 부대표은 한미 FTA 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동의했다. 한미 FTA 을 통해 통상마찰은 통상협력으로 승화하고 양국의 무역과 투자 규모는 둘 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. 커틀러 부대표는 이제부터 한미 양국은 양자 뿐만 아니라 역내 공통목표를 추구하고, IPEF 가 바로 이러한 협력의 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. IPEF 가

*\*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summ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speakers or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*

## Session Sketch

The Asan Symposium:  
“Celebrating Korea-US Relations: 140 Years and Beyond”  
<http://asansymposium.com>

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관련 조기경보체제 구축해야 하며, 한국과 동남아-서남아 국가 간의 긴밀함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

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(KIEP)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0 주년을 맞는 한미 FTA 는 매우 균형적인 합의라고 평가하였다. 그러나 지난 10 년동안 신기술과 기후변화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. 이전에는 혁신보다는 비용이 제일 낮은 곳을 찾았이나 이제는 혁신이 더 중요한 요인이며, 따라서 IPEF 는 혁신을 촉진하는 협력틀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 한국 대기업들이 향후 5 년간 1 조달러 가량되는 투자를 계획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가 IPEF 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.

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고 주장하였다. 코로나 19 와 러시아 우크라 침공은 중러가 이미 경제안보를 무기화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고, 중국의 일대일로 또한 이러한 경제안보 무기화 사례이라고 말했다. 김 연구위원은 IPEF 는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좋은 틀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IPEF 는 역내에 국한될 뿐만 유럽으로까지 공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.

노종원 SK 하이닉스 사장은 반도체는 이제 경제의 근본 기술이라고 말했다. 미국은 반도체 최대 시장 중 하나이자 기술혁신의 산실이며, 한국은 이러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노 사장은 설명하고, 한미 상호의존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. 미래 도전에 성공적으로 맞서는데 기술 컨소시움 이 중요하며 따라서 한미간 상호보완적이며 한미간 기술과 경제 파트너십은 경제안보의 양대 축이라고 지적하였다.

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와 경제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.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

*\*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summ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speakers or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*

## Session Sketch

The Asan Symposium:  
“Celebrating Korea-US Relations: 140 Years and Beyond”  
<http://asansymposium.com>

과정에서 배터리의 대부분은 한국 또는 한미 합작 기업에서 생산되는데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고 말하였다. 리튬과 코발트는 소수 국가에서만 생산되는데 이 리스크 해결은 양자관계로만은 부족하고 다자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. 또한 스타트업이 기술혁신과 경쟁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상기하였다.

세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한미 FTA 가 양국 경제 관계에서 긍정적 전환점 역할을 하였고 경제안보에서도 양국간 공조가 인태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.

*\*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summ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speakers or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*